

뉴라텍/NEWRACOM 소식 (2020년 3월 넷째주)

2020. 3. 27.

◇ 장거리 와이파이 칩셋 日로부터 2차 구매발주서 접수 “일본 시장 본격 공략 신호”

- 뉴라텍의 미국 자회사 뉴라컴은 지난 3월 17일 글로벌 Top 판매대리점 중 하나인 애로우일렉트로닉스 재팬(Arrow Electronics Japan, KK)으로부터 국제 표준(802.11ah)기반 장거리 와이파이 칩셋 제품(제품명 : NRC7292) 에 대한 2차 구매발주서를 접수함. 이번에 주문한 물량은 총 2만 5천 개의 적은 수량이지만, 일본 내 글로벌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소니(Sony), 카시오(Casio), 글로벌 무선통신 모듈업체인 사일렉스테크놀로지(Silex Technology) 등에 초기 납품되는 물량으로 해당 기업들이 당사 제품을 탑재한 사물인터넷(IoT)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향후 대량 납품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탄이기도 함.
- 뉴라컴은 이미 지난해 8월 애로우일렉트로닉스 재팬을 통해 사일렉스테크놀로지에 납품한 소량의 1차 구매발주서를 접수한데 이어, 이번 2차 물량 생산을 의뢰받은 상태로 일본 내 고객이 점차 확산되고 NRC7292가 탑재된 제품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음.
- 특히, 일본은 전 세계에서 그 어느 국가보다 당사가 개발한 장거리 와이파이 기술에 대한 기대 및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. 그 일환으로 '18년 말에는 일본 내 80여개의 산·학·연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『802.11ah추진협의회』를 발족하였으며, 협의회에 속한 다수 회원사들은 그 동안 당사의 기술 지원 하에 다양한 IoT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증실험 및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음. 이번 2차 구매발주는 이러한 당사의 지원 및 노력의 실질적인 결실로 향후 관련 제품 출시 시 대량주문이 기대됨.
- 뉴라텍·뉴라컴 이석규 대표이사는 “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당사 사업 운영 또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”면서 “이러한 상황에서의 이번 2차 물량 납품은 더욱 의미가 크며, 특히 일본 내 글로벌 대기업들이 당사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인정하게 된 사례로서 타 글로벌 시장으로의 제품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”고 전망함.
- 한편, 뉴라컴은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전 세계 수십 곳을 대상으로 활발할 영업활동을 전개 중으로, 조만간 중국, 미국 시장부터 NRC7292 칩셋에 대한 대량 구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